은혜와 진리 소식

2025년 1월 19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제1914호 1982년 8월 8일 창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살게 하여 주시고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 문 일 주 -

저는 대전성전에서 청년봉사선교회에 소속하여 은혜와진리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입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이 젊은 날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힘써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섭리하여 주십니다. 저의 필요를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그때그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며 필요를 채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 가운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저와 함께하시고 도와주심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나라가 혼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청년 수련회와 여러 가지 연합활동 중에 신실한 청년들과 함께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합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헌신하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저의 시선을 돌이켜 성경적인 관점에서 문제의 근본을 바라보고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여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임을 확실히 깨닫고 실천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누리는 신령한 즐거움과 복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느끼는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셔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공백이 무색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들어 사용하시며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에서 넷이 되고 넷에서 다섯이 되게 하시며, 짧은 기간에 많은 청년이 모여 한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 헌신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저마다 다른 모습, 다른 재능, 다른 성격이지만 청년봉사선교회를 통해 각 지체가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해 주시며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게 해 주십니다. 특히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할 때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커지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커져서 열심히 봉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봉사의 영역이 넓혀지니 함께 하는 청년과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크고 깊어지는 선순환을 느꼈습니다. 이는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함께 봉사하는 청년들 모두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하심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겪은 질병과 그 아픔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였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발견하고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래 전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한일서 4:16)는 이 말씀을 저는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딸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하여 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올 때 저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예레미야 33:2,3) 하신 말씀을 붙들고 신유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질병을 발견한지 1달이 안 되어 수술을 받았고, 수술한 후 조직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회복하기까지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수술을 받고 3주가 지나 수술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외래 검사 때에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침 제일 이른 시간에 저의 수술을 먼저 집도해 주셨고 또 저녁 늦은 시간에 녹초가 된 상태로 회진을 오셔서 수술이 잘 됐으니 염려하지 말라며 격려해 주신 교수님, 병원까지 먼 길을 오가야 하는 저를 위해 이틀, 사흘씩 걸릴 여러 가지 진료와 검사를 최대한 하루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분들에게 간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인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어머니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머리를 끄덕였지만,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대기실에서 호명을 받고 진료실로 들어가기 직전에 준비한 선물을 손에서 놓치면서 망가져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쉽고 속상했는데, 병원문을 나서면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발전된 현대 의학과 의술을 의료진이 저를 위해 적시 적기에 활용하게 해주시고 또 일사천리로 수술과 치료의 과정이 진행되게 하셔서 마음의 근심, 육신의 병으로부터 저를 자유케 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지난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도 표현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나 돌아보며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를 다양한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순간들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섬세한 손길로써,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써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의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낙심을 소망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을 저의 삶에 모든 동기와 목적으로 삼아서 행하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거룩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팔달구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 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율전 :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2권 (제7단원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제32과) 말세의 징조들

- **본문** : 마태복음 24:6-8, 23-39
- **요절** :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마태복음 24:33)
- **찬송** : 167장(새찬송가 179장), 373장(새찬송가 503장)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궂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마 16:1~4)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말세의 징조를 제대로 분별해야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전쟁과 천재지변이 빈발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마 24:6~8)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의 목전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나라와 나라 간에, 또는 민족과 민족 간에 일어나는 전쟁을 살펴봅시다. 세계 역사를 살펴볼 때 20세기만큼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난 시대는 없었습니다. 문명이 급격히 발달한 20세기에 인류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세계 대전을 두 번씩이나 치렀으며, 21세기인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크고 작은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사이좋게 지내던 민족들이 반목하고 총부리를 겨누는 일이 오늘날에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세계 처처에서 천재지변이 빈발하는 현실에도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다. 과거에 비해 화산 폭발과 지진의 발생, 폭염과 산불, 폭우와 폭설, 오랜 가뭄으로 인한 기근과 같은 재앙이 더욱 빈발하고 있음은 이 시기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말세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모든 징조를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재림의 때가 임박하여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2.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로서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마 24:23~24)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오늘날에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나타나서 교묘한 이론을 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칭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공공연히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를 주장하거나 따르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뉴 에이지 운동과 같이 사탄 숭배를 조장하고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을 전파하는 유사 종교가 그 세력을 전 세계로 뻗쳐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어떤 신비로운 체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쉽게 넘어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성경 말씀에 굳게 서있는 성도들은 보석 감정가가 옥석(玉石)을 쉽게 분별하듯이 거짓된 자들의 거짓된 사상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날이 혼탁해져가는 교계의 실상을 보면서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세의 징조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신실하게 이루어지며 그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하겠습니다.

3. 인간성의 급격한 타락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사람들의 사는 모습에 관하여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마 24:37~39)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져 자기 영혼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회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은 세상의 안일을 탐하여 소돔성에 거했던 롯과 같이 세속화의 조류에 휩쓸려 살아가는 신자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를 접하면서 불안해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마 24:33)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 경성하여 예배와 봉사와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